

본문: 창세기 2 장 18-24 절  
제목: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 1. 무촌 사이

우리는 부부사이를 보통 일촌이라 하죠.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임에도 일촌입니다. 그런데 다른 핏줄에서 태어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우리는 무촌이라 부르며 가장 가까운 사이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면 결혼이라는 것이 비생물학적인 외부자와의 삶을 위해 자신의 생물학적인 관계(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떠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은 무모한 결정과 모험이 바로 이 결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 부부의 이름을 넣어서 읽는다면 여러분의 느낌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23 절을 저희 부부의 이름을 넣어 읽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때에 김경헌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천지은!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닭살 돋죠? 어떤 분은 "하지마~ 정신 나갔어? 제발 그러지마~"라고 남편에게 헤드락을 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다 낳아 주신 부모를 버리고 낯설었던 남자 또는 여자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배우자와의 만남과 삶을 통해 어떤 의미들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아직 싱글이시라면 나의 반쪽을 찾아가는 건 잘하는 일이며 의미있는 일일까요?

여자와 남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또는 여자와 남자가 둘이 하나되어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데도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의미들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2 장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결혼과 가정 그리고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2.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일단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담은 인류의 원형적 존재라는 겁니다. 아담은 인간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원형(archetype)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경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것을 보고

기뻐하셨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창조시에 사람(아담)을 만드시고는 좋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 눈에 좋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원형이기에 우리들의 존재는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이들과 연결될 때 우리의 존재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9월 첫주 부임 설교 때 말씀드렸었죠. 우리의 참 인간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완성된다구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표현을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구절에서 주어로 1인칭 복수를 쓰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수이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표현에서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복수로 사용된 걸까요? 창세기를 쓸 당시에는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없었지만 우리는 삼위일체를 통해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을 만들 시작때에 이미 존재하셨음을 알려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은 혼돈과 공허위를 운행하고 계시기도 하셨죠(2절). 인간을 만들 때 우리들의 형상으로 만들자고 한 것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삼위일체란 참으로 신비한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세 위격(位格, persons)이 한 본질(essence, substance)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용어도 어렵고 쉽게 이해하기 힘든 교리입니다. 전통적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존재방식을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라는 헬라어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하고(inter-penetration) 내재(inter-dwelling)하면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삼위일체는 공동체적인 존재방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달리 말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위해 활동하지 않으시고 서로를 위해 활동하시는 공동체성을 띠는 것이죠.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방식입니다. 성자는 성령을 통해 성부를 위해 일하십니다. 성령은 성자를 통해 성부를 드러내십니다. 성부는 성령을 통해 성자를 섬기십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서로를 위하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특징적인

존재방식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방식을 그대로 인간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적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또한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그 뜻은 창조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관계적인 모습이었던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한 인간들끼리 관계를 맺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의 모습, 즉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바로 모든 관계가 평화롭게 회복된 나라일 겁니다.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공동체적인 DNA가 존재 깊은 곳 안에 심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자신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여야 하는 이유는 참 인간됨을 공동체를 통해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적인 존재이기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한 공동체적인 존재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relational being)라는 겁니다. 이 관계적인 삶을 가장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삶이 부부의 삶이구요. 그래서 창세기의 처음 두 장에 걸쳐 남녀의 창조와 그들의 관계의 본질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 3. 아담의 반쪽으로 하와를 만들다.

오늘 읽은 창세기 2장은 아담을 통해 여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외과의사분들도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외과적 수술 과정이 아담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은 아담의 존재를 통해 여자를 만들어 내시죠. 잠든 사이라 말하는데 마치 마취상태를 연상케 합니다. 저도 큰 수술을 한 번 받았을 때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마취약 들어갑니다”라고 말하고 바로 정신이 나가더라구요. “김경현 씨 일어나세요.”하기에 깨어났는데 6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구요. 아담도 잠시 잠깐 눈을 감았다 떴는데 여자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얼마나 놀라고 흥분됐을까요?

여기서 사용된 갈빗대라는 히브리 단어 첼라(צֶלָה)는 해부학적인 용어로 성경에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첼라는 성전과 관련된 단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언약궤의 양쪽 면에 달려 있는 손잡이, 성전의 북쪽 측면과 남쪽 측면 등을 가리킬 때 쓰였습니다. 대칭적인 것의 한 쪽면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갈빗대의 반쪽면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반쪽 면을 취하셨다는 거죠. 갈비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대칭적인 뼈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확실히 구분되어 있죠.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가 아니라 아담의 반쪽면을 취하시고 떼어낸 부분에는 새로운 살로 메꿔 놓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볼 때 이런 고백을 하죠.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군요(새번역).”라고요. 이 해석을 뒷받침 해주는 단어 하나가 더 있는데 18 절에 “뒹는 배필”로 번역되는 ‘네게드(תָּגִיד)’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반대편(opposite side)이라는 뜻입니다. 배필이라는 말보다 ‘반쪽의 다른 면’이 원어에 가까운 뜻입니다. 말그대로 남자는 여자의 반쪽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누가 더 낮고, 누가 우위에 있는가를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건 여자를 어떤 재료로 만들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의 대칭적인 동등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하나되는 것이 몸을 섞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반쪽과 반쪽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우리는 이 신비를 발견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의 관계를 통해 나의 참 모습을 찾아가는 신비를 깨닫는 것이죠.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의 세계에서 여성은 남성의 부속품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대시대에는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오히려 여성을 통해 남성의 존재가 의미를 갖고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혁명이 바로 성경의 첫 부분부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창조가 진행될 수록 더 완벽하고 고등적인 피조물들이 만들어지죠. 남자가 만들어지고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남자분들은 기분 나쁠 지 모르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더 완벽하고 고등적인 존재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복잡하고 세밀합니다. 여자들은 출산이라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남자 아이 셋을 키우는 것보다 여자 아이 셋을 키우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여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훨씬

감정 소모가 심합니다. 제 아내는 이것을 결혼 전부터 알았던 것인지 저의 소원과 상관 없이 남자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행히도 남자 아이 셋을 가진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내 말 잘 들으라고 그러시나 봅니다. 저도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내의 의견이 거의 옳다는 겁니다. 아내 앞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내 주장을 꺾지 못하지만, 돌아서면 "그래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인정하긴 싫다." 라고 혼자 생각하곤 합니다.

#### 4.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왜냐면 관계적인 분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 장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서로의 관계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될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 장에서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구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배우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랑을 배우가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구요.

관계란 갈비뼈가 양쪽으로 동등하게 나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동등한 존재들이 동등한 위치와 가치에서 출발하지 않고 온전한 관계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부부는 동등합니다. 어는 누구도 다른 누구에 비해 존귀한 이가 없고 월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이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까지 말씀하시죠. 부부관계는 물론이요 모든 관계는 이러한 상호 동등성에서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 시키기 위해 우리와 동등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고 고통을 몸소 경험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겸손해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과 동등해지지 않고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 장 10 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화해한다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 exchange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등한 자격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죽음을 교환하신 것이 바로 화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고린도후서 5 장 19 절에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하셨던 대수술을 십자가에서 다시 행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빗대를 찢어서서 물과 피를 쏟아 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의 구멍난 갈빗대 사이로 흐르는 물과 피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도 사랑하시는 인간과 그들의 세상과 화해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반쪽이셨던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희생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그분의 또 다른 반쪽인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태초에 무너졌던 인간과의 관계는 아름답게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죠.

#### 5. 일상의 관계망들 안에 열매 맺는 삶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당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 우리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질을 우리와 공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만큼의 존귀함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존귀함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고 어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상호존중과 동등함의 태도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직장, 학교, 동아리, 동네 등등 얽히고 설펀 있는 관계의 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관계망을 이웃이라 부릅니다. 이 관계망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들 안에서 상호존중과 화해가 이뤄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들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관계망들 안에 아름다운 화해와 샬롬의 열매들이 맺히길 축복합니다. 이웃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관계망 속에 있는 이가 나를 통해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꽃피우고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